

함평읍 중앙길 옛 영광 되살린다... 500억 투입

군농협사거리~옛 한전 인구 줄고 접근성 불편 공동화 심각 도시재생 뉴딜·농촌중심지 활성화·5일장 환경개선 등 연계

함평군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함평읍 중앙길 주변에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1980년대 함평의 대표 상권이었던 함평읍 군농협사거리부터 옛 한전 구간인 함평읍 중앙길에 인구 감소와 접근성 불편으로 기관들이 하나 둘 떠나면서 공동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당시 이곳에는 함평군청을 비롯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한전, 농협, 축협 등 대부분 기관들이 자리한 함평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일방로가 지정된 뒤 차량 통행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상가엔 찬바람이 불고 점차 빈 상가가 늘어나는 등 쇠락해갔다.

지금은 함평군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전한 상태다. 함평경찰서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은 중앙길 활성화를 위해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145억원)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50억원), 함평읍 중앙길 일원의 5일 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60억원) 등 총 사업비 3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함평전지, 한우·나비·국화 축제와 만남'이라는 주제로 함평읍 중앙길을 비롯해 기각리 일대에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사업비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함평읍 중앙길 일대의 도심주거 기능 회복을 위한 주택정비사업, 한우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동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복합플랫폼 등을 조성한다. 또 부족한 공동체 공간을 공급해 어울림센터, 교육창업 거점센터 등을 운영한다.

함평군은 주차공간이 협소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함평읍사무소를 옛 함평교육지원청으로 이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함평읍사무소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맘카페, 아동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류 거점의 복합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지역개발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60억원 가운데 48억원을 투입해 주차장도 조성한다.

한전과 공동 사업으로 12억원을 투입해 일방로 구간 전방대 지중화 사업도 병행한다.

또 행정안전부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들여 함평읍 공영터미널에서 농협 함평군지부에 이르는 중앙길 상가 정비에 나선다.

이밖에 기각리 일대 LH 행복임대주택(60세대) 건설, 함평지역 수요맞춤사업 25억원,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사업 91억원 등 중앙길 주변 함평읍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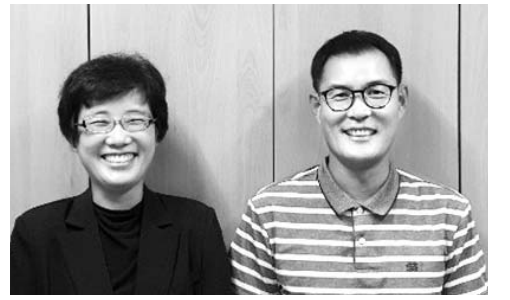


함평군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함평읍 중앙길 주변에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대에 총 500억원에 달하는 작·간접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 관계자는 "중앙길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연계 사업으로 함평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활기넘치는 특성화거리를 조성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나주농기센터 정석곤·김애진씨 '국민 제안 공모전' 최우수상

토양 시료채취 자동화기술 등 개발

나주시 공무원이 토양검정을 위한 '전동식 오거(auger)'와 '시료봉투 QR코드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해 화제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중인 정석곤(오른쪽) 농촌지도사와 김애진(왼쪽) 농업연구사가 최근 농촌진흥청 주관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토양검정 시료 채취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도구 신제품 '전동오거' 개발과 시료 정보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 아이디어를 냈다.

'전동오거'는 채취 작업에 주로 사용되던 수동식 오거에 전동기기(드릴)를 연결한 제품으로 노동력 절감과 노동시간 단축 등 작업에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전동기기 관련 업체와 9월 출시를 목표로 시제품 개발에 착수했으며 농촌진흥청과는 기존 오거와 전동기기를 연결하는 핀을 제작 중에 있다.

정 지도사와 김 연구사는 토지별 지적 정보를 간편하게 입력·관리할 수 있는 'QR코드 전산화 시스템'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토양시료 기본 정보를 QR코드로 집약시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 토양 정보를 QR코드로 라벨링화해 시료 봉투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화순군이 아열대 소득작물인 백향과(패션프루트) 재배를 집중 육성, 지난해 농장 6곳 0.54ha 면적에서 재배를 시작해 현재 14곳 1.52ha로 확대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 아열대 과일 백향과 재배 늘었다

올해 14곳 1.52ha...전년비 3배

화순군은 지난해부터 집중 육성 중인 아열대 소득작물인 백향과(패션프루트)의 재배 농가와 면적이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해부터 2년간 패션프루트 단지 조성 사업에 4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재배단지가 지난해 6곳(면적 0.54ha), 올해 8곳(0.98ha)이 생겼다. 현재 화순지역에는 14개 농가에서 총 1.52ha의 백향과를 재배, 생산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해부터 정부 공모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목 패션프루트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시설 하우스, 보온시설, 관수 시설, 개폐 시설 등 환경 제어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록 지원하고 있다. 농가들은 1년에 두 차례 패션프루트를 재배·수확할 수 있게 됐다.

화순에서 생산한 패션프루트는 현재 도곡로컬푸드, 화순로컬푸드, 광주남구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패션프루트는 상큼한 맛과 향이 매력적인 과수로 '여신의 과일'로도 불린다. 비타민 C, 칼륨, 엽산이 풍부해 변비 예방과 신장 기능 향상, 혈압 강하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화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작목 발굴과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역사향기테마공원 조성

남동리 남산공원에 100억 투입...군유지·국유지 '22:1 맞교환'

장흥군이 '역사향기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대규모 군유지와 소규모 국유지를 맞교환하기로 했다. 면적으로만 보면 22:1로 격차가 극심하다.

2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총 사업비 100억원(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을 들여 장흥읍 남동리 남산공원 일원 7만4000㎡에 '역사향기 숲'을 조성한다.

이 곳에는 한반도 사방진 테마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숲속 공방 등이 갖춰져 지역주민의 힐링 휴식 공간을 활용된다.

문제는 사업부지 7만4000㎡ 가운데 절반 가량인 3만6239㎡가 국유지라는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장흥군은 국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법'에 따라 국유지는 매입·매각할 수 없게 돼 있다. 결국 국유지와 군유지를 맞교환할 수밖에 없다.

장흥군과 산림청은 교환 부지로 강진군 군동면의 산 5필지 52만2149㎡와 장흥군 유치면의 산 28만958㎡ 등 총 80만3107㎡를 협의의 중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장흥군 산림(국유지) 80만3107㎡를 산림청에 주고, 산림청 산림(국유지) 3만6239㎡를 장흥군이 받는다는 조건이다. 면적만 놓고 보면 22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임업인들과 일부 장흥군의회원은 "국유



장흥읍 남동리 근린여양공원 국유림 전경.

림 운영 관리의 지나친 규제도 문제지만 대규모 국유지와 소규모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국유지를 헌납하면 서까지 '역사향기테마공원 사업'을 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면적만을 놓고 보면 22:1의 격차이지만, 토지 거래 가격으로는 거의 일치한다고 장흥군은 설명했다.

사업 부지 내 국유림 3필지의 감정 추정가는 5억4216만원이다. 반면, 국유림 6필지는 땅은 넓지만 활용도가 낮은 데다 맹지(盲地·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여서 감정 추정가 5억4222만원으로 엇비슷하다는 것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부지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 가치와 활용도가 더 중요하다"면서 "현재 산림청과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으로 협의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 내일 창평면부터 단수

26개소 상수도 노후관 조사

담양군은 상수도 노후관 조사사업을 위해 4일부터 창평면을 시작으로 26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단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상수도 노후관 조사는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다.

담양군은 간접조사를 통해 분석된 상수도 노후관을 절단해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절단한 시편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를 위해서는 단수가 불가피해 단수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세 아동 45세 이상 저소득층 저가임대주택 무료 보급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억~4억 원의 임대주택 지원
- 50세 이상 초장학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3~4세 아동 등 교육신청 위약금에 한해 무이자 대출
- 50세 이상 초장학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저가임대주택 지원
- 저가임대주택 지원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관동지점 266-4150	영암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